



어떻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받고서 문득 “공기에 색깔이 없는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나 세상을 가득 채우는 공기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 곁에 옆에 위에 아래에 온통 충만하다는 말 외에 어떤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에 귀로 들어야만 깨닫는 우리의 한계를 십분 감안하시어 성경을 기록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말씀이 곧 주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늘 교회의 목소리와 자연과 이웃을 통해서 다양하게 당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손길에 예민하도록 마음을 깨우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소음보다 낮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감각을 주님께로 조율해야 합니다. 주님을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분만을 향하는 훈련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믿음이야말로 주님을 느끼는 가장 탁월한 수단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는 하늘에서 온 빛에 눈을 응시함으로써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광야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분을 찾았습니다, 삶의 끝에 와 있는 지금은 눈을 감는 것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내 안에서 발견합니다.”라는 까를로 카레토 수사님의 고백에 확, 느낌이 오기를 원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의인의 집안에는 평화가 있다.

(시편 128,1-6)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31장 “이 크신 모든 은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 2 네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 3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 나무 햇순들 같구나.
- 4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 5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경외심은 인간이 절대자인 하느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하느님의 무한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두려움, 또 미소한 자신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에서 흠숭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외심을 깊이 느꼈던 일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또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신앙심이 돈독하고 매우 인격적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늘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그 교수님을 본받아 많은 학생들이 옷깃에 장미를 꽂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들이 꽂은 장미는 하루도 못 가서 시들해졌는데 교수님의 장미는 일주일도 가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학생들이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장미가 꽂혀있는 자기 옷깃을 뒤집어 보여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장미는 옷깃 뒤에 있는 조그만한 물병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꽃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상태와 수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주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결코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요한 7,37-38; 요한 15,1-5; 요한 6,53-58 참조). 이런 축복된 삶의 시작은 바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31장 “이 크신 모든 은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본당 설립 60주년,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본당 |

- 월남동본당 구역분과장 이동숙 헬레나 -

월남동본당은 2017년 6월에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유서 깊은 본당입니다. 1957년 6월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성전이 없어 현 교구장이신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님의 본가에서 미사를 드렸고, 1964년까지는 완월동본당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집전하셔야 했습니다. 1968년 3월 성전 완공 이후 신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1990년 7월의 화재로 본당 건물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우들은 분연히 일어서서 10개월 만에 더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였고 1998년에는 해운본당(현 월영본당)을 분가시켰습니다.

완월동본당과 월영본당 사이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 여러 개신교 교회가 포진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교우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고 전출이 늘어나 기존 반 모임이 해체되는 위기도 있었지만 구역 외에 거주하는 교우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구역 15개 반이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으며, 각 구역마다 형제회가 조직되어 본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5구역은 낮과 저녁 모임이 따로 있지만 저녁 모임은 부부 동반으로 모여 함께 친목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안에서 깊이 있고 진솔한 나눔을 통해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서로가 소중한 이웃임을 깨닫습니다. 실천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생명의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일상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영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매주 구역 별로 돌아가면서 미사 안내, 예물 봉헌 등 전례봉사를 하고 있으며 여름 신앙학교, 본당의 날 등 본당의 제반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사표 전달, 봉성체 대상 파악과 봉성체 협조 등 많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잎들을 떨구고 허허롭게 서 있는 고목 같지만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며,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본당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비상을 꿈꿉니다.

